볼 없는 스트라이크 인생

(에스겔 14:1~23)

1.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2.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5.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볼 없는 스트라이크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볼 없는 스트라이크 인생'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얻기 위해서는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포수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타자는 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을 정확하게 쳐야만 합니다. 공을 못 친다면 당연히 스트라이크고 빗겨 맞추어서 파울이 되어도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수가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한 사람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았다면 퍼펙트게임이 됩니다.

스트라이크는 볼링에도 있습니다. 볼링은 1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한 번에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로 기록합니다. 모든 회에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내면 300점 만점의 퍼펙트게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퍼펙트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인생에서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많은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포볼이 되면 타자가 출루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투수의 입장에서는 무겁고 지루한 게임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종종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삶에서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지면 기분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지 모르는 완벽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철학자 하이데거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피투성(被投性, Geworfenheit)과 기투(企投, Entwurf)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삶을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투성이나 기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독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거가 자신의 사상을 적합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피투성은 던져졌음을 의미하고, 기투는 계획을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피투성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한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던져져서 살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도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이데거는 이 피투성에서 불안의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사람에게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곧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심리상태입니다. 원해서 도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 늘 불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인해 사람은 기투를 하게 됩니다. 던져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기획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즉 기획을 던지는 것이 기투인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렇게 던져짐에 갇혀있지 않고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되는 것을 인간의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생의 스트라이크와 볼이 문제가 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삶에서 기투를 할 때에 그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냐는 것입니다. 이 기투가 스트라이크가 되면 신나겠지만 볼이 된다면 낙담하게 됩니다. 삶에서 볼이 계속되면 기투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투를 할 때마다 그것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퍼펙트게임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무신론자로서 인간의 실제상황을 그대로 관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피투성과 기투였습니다. 인간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던지는 자의 삶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던지는 대로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부조리는 볼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 던져진 자가 던지는 자가 되려 하는 시도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피투성의 존재가 기투의 존재가 되려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스트라이크를 없애고 볼로 가득 채우는 자충수이고 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투성과 기투의 요소를 접목시켜 보면 “개천에 던져졌으나 용이 되어서 빠져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투가 스트라이크로 이어질 확률이란 극히 적습니다. 한 마리의 용을 제외한 모든 물고기는 용이 되는 꿈만 꾼 채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천에 던져졌으면 용으로의 변신을 꾀하지 말고 물고기로서의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던지는 자가 되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려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이 진실에 도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스트라이크로 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던져진 자에서 던지는 자로써의 변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던진 자에게 주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던져진 상태에서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원하며 계속해서 삶을 기획하여 던집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던져진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던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던진 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이데거의 사상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곧 기투입니다. 삶의 스트라이크를 원해서 기대와 희망의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스트라이크가 되느냐 볼이 되느냐는 운이나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는 애초에 나를 세상에 던지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삶을 기획하여 던지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나를 던지신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대해 던지시려는 기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기획과 하나님의 기획이 동시에 던져질 때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기획이 밀려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던진 기획이 밀려나고 실패하게 되면서 삶이 불행으로 채워져 나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기획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스트라이크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던져졌으면 던져진 자로써의 위치를 굳혀야만 합니다.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또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집에 던져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 기획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나를 던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던지실 기획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던져짐을 받는 자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계속해서 기획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

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기획들은 빠짐없이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트라이크는 대체 무엇을 빼고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상황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일류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취직하여 승진하는 것만이 삶의 스트라이크는 아닙니다. 비록 삶에서 세상적인 형통과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마음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라고 반복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골자가 바로 우상숭배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예언서의 거의 모든 장마다 우상숭배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는 좀 특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과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언서에서는 주로 우상숭배의 행위 자체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 '마음에 들이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의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민들이 유다에 있을 때에는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숲에 산당을 지어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틈에 여호와 하나님도 끼워 넣어서 우상과 동일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 와보니 기존에 섬기던 우상들이 없었고, 포로 된 입장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민들은 유다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일이 생겨서 며칠간 집을 비우자 금세 집안 꼴이 엉망이 되고 아내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내를 마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선민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우상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선민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행위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게 되자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선민들은 왜 이토록 우상에 매이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던져진 자가 던지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기획을 던지셨기에 포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오히려 무신론자인 하이데거의 조상쯤 되는 듯이 행동합니다. 포로로 던져진 상황에서 또 던지는 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포로의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싶다는 기획을 하고 그 수단을 생각해봅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건재하니 이것을 미신적으로 믿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신에 불과하기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추가적으로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도 우상과 똑같이 여겨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6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던져진 자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스스로 계시면서 피조의 세계를 향해 기획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던져진 자로써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과 던져진 자로서의 인간은 그 입장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던져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인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던져진 자에서 던지는 자로서의 변신을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권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던져진 자로서 던지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원죄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상숭배는 이러한 원죄가 극복되지 못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던지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을 이기고 긍정적인 묵인을 얻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던지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서는 이미 건강이라는 기획이 시도되고 꾀해지고 있습니다. 던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복음과 신앙의 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포수와 사인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기획이 내 삶에서 스트라이크가 되기 위해서

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구약에서는 상번제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던져진 모든 인간은 원죄의 기질을 따라 던지는 자로 변신을 꾀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계획하고 뜻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추구합니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피투성의 존재로써 기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던져봐야 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볼이 누적될수록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던지려는 자가 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던져 놓으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던지는 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던지는 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철들고 나자 출세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되려는 기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던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스트라이크로 만들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던지는 자로써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개천에서 빠져나오려는 변신을 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천에 던지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던지는 자가 되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기획이 계속해서 던져지며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풍랑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은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던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던지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자로써의 변신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스트라이크가 계속되게 됩니다. 어느덧 개천도 사라지고 사자 굴도 사라지고 불구덩이도 사라질 것이고 삶은 천국과 에덴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로 던지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를 내실 수 있게 해드리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던지려는 나입니다. 삶에 대해서 어떤 기획이나 시도보다 우선 하나님을 바라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기획하고 판단하고 소원하는 기투를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던지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내 삶에서 스트라이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야 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삶입니다. 이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자가 된다면 삶에서는 볼만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고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획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꾸만 더 보태고 싶어집니다. 설령 돈을 100억이나 벌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해봅니다.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기투가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부족함이 계속 느껴진다면 그것은 볼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하니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문제 때문에 괴롭다면 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기투하려는 나를 죽인다면 비록 지방대를 갔을지라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스트라이크의 완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던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던지는 자가 되려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던지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를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스트라이크가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스트라이크만 나오는 퍼펙트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 복잡한 것, 어려운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던져진 자로써 던지는 자로의 변신을 꾀하려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매순간 내 인생에 스트라이크를 던지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